

양계산업의 발전과 전망

양계산업은 성장산업이다



許 信 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실장 경제학박사)

양계산업이 우리나라 농업발전과정에서 선구자적인 위치를 차지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일반국민의 인식은 아직 미흡하고 양계인 자신들의 계속적인 노력도 많이 둔화된 것 같아 중단없는 전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양계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살피고자 한다.

우리나라 본래의 전통적인 축산이란 경종농가(耕種農家)에서 소 한마리와 돼지 한 두마리 그리고 닭 열마리 내외를 부업으로 기르는 정도였다. 농가부산물(농가부산물)을 효과있게 이용하면서 가축으로부터 퇴비(퇴비)라든가 축력 그리고 고기를 얻는 상호보완적인 복합경영형태를 유지해 왔던 것이 그리 멀지않은 십여년 전의 일반적인 농촌실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산을 좀더 전문적으로 시작하여 대규모화된 것이 양계산업이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양계는 적은 자

본을 가지고 비교적 좁은 땅위에서 아무나 쉽게 시작해볼 수 있는 업종이다. 양계는 사양관리가 어렵지 않고 돼지에 비해 질병에 강하며 생산의 회전속도가 빨라 자금회전 역시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에게는 안정맞춤인 분야라 할 수 있다.

생산의 용이성과 비례해서 닭고기의 소비도 거의 모든 국민에게 일반화되어서 소비촉진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기본수요는 확보되어 있는 셈이다. 생일날에나 추석 그리고 설 등의 명절에는 누구나가 기르던 닭을 잡아 먹어왔기 때문에 닭고기에 대한 선전을 하지 않아도 됐다. 또한 귀한 사위가 처가를 방문할 때면 소중한 씨암탉을 잡아 대접한다해서 닭고기는 고급농산물로도 인식되어 있는 터이다. 말하자면 생산과 소비 두 측면에서 양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셈이다.

기술의 혁신은 산업을 생동력있게 만들고 경쟁체제로 몰아간다.

지난 20년간(1960~80) 닭고기 소비량은 국민 한 사람당 3.3배로 늘어났는데 인구증가 몫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생산도 따라서 5배 이상 늘어나 양계의 전문생산을 촉진하게 된 것이다. 놀라운 변화는 계란소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 한 사람당 1960년에 평균 불과 33개를 소비하던 것이 20년 후인 1980년에는 119개로 급증했다. 이렇게 하여 양계업은 성장산업의 하나로써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정지상태에 있던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자연의 조건에 전적으로 매달리다시피 한 경종농업과는 달리 양계는 건물안에서 모든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관제로 자연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라 생산성에 놀라운 격차를 가져오므로써 젊은 농학도들에게 매력있는 산업으로 부각되었고 실제 돈을 번 사람들도 많았다. 기술의 혁신은 바로 그 산업을 생동력있게 만들고 경쟁체제로 몰아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계업은 일찌기 전업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0년전까지만 해도 2천마리 이상 기르는 농가의 양계비중이 낮았는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들 전·기업양계농가는 전체사육 마리수면에서 75% 이상을 차지하는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전업화시대를 맞이한 셈이다.

도입 사료곡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양계산업은 발전산업이다.

양계산업이 효율적인 생산단계에 접어들었

다는 것은 여러가지 경제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첫째, 어렵게 벌어들인 달러를 지불하고 수입해오는 옥수수나 수수 등의 사료곡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양계산업의 사료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경제 발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합리성을 갖게 된다. 일찌기 덴마크에서는 값싼 사료곡물이 물밀듯이 들어오자 당시 높은 사료효율과 더불어 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양돈업을 발전시켜서 돼지고기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독일과 영국 등지에다가 수출을 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다. 우리도 사양기술을 고도로 개발하여 사료효율이 높은 양계산업의 수출길을 터 보는 것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닭고기 소비 계속적인 증가추세

양계의 전업화 과정에서 생기는 두번째 문제는 닭고기 소비의 전통적인 관념을 어떻게 깨뜨리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닭고기를 좋아하는 하지만 일상의 식생활에서 항상 즐기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닭고기 소비가 음력 6월의 복(伏)을 전후해서 보신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닭고기 소비의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의 두툼한 장벽이 가로 놓여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한약을 많이 복용하는데 대개의 경우 닭고기와 돼지고기 섭취를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념상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옥류에 닭고기가 속해 있다. 양계의 전업화 내지 기업화의 길은 닭고기 소비의 대중화없이는 순탄하게 발전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을 다시 한번 더 서둘러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생산분야에서 농업의 발전을 위해 제1의 선구자적 모범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유통분야에서 그 실력을 다시 발휘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양돈인들도 양계인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유통혁신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들리지만 역시 쉬운 분야가 양계라고 생각한다.

흔히들 생산자는 생산만 하면 되지 무슨 유통까지 담당하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업적인 생산 이전의 단계 즉 부업축산일 때 하는 말이고 이제는 닭이나 계란도 전업 내지 기업화단계에 들어섰는데 공산품의 경우 기업의 운명은 판매과정에서 좌우되듯이 양계인들의 운명도 판매과정에서 결정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이 바로 양계인의 제2 도전장이 펼쳐진 시기라고 내다보아야 할 시기이다.

“생산은 농민” “유통은 중간상인”의 등식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은 농민에 의해서” 개선되고 향상되어야 한다. 전업적으로 생산하는 양계인들이 모여 도계장을 짓고 상품의 다양화를 기하며 판매망을 계열화 해서 유통마진도 줄이고 상품질도 높임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란도 마찬가지다. 생산자조합을 통해서 계통판매하며 자체적으로 수급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활동과정에서 계산물에 대한 소비촉진도 과감하게 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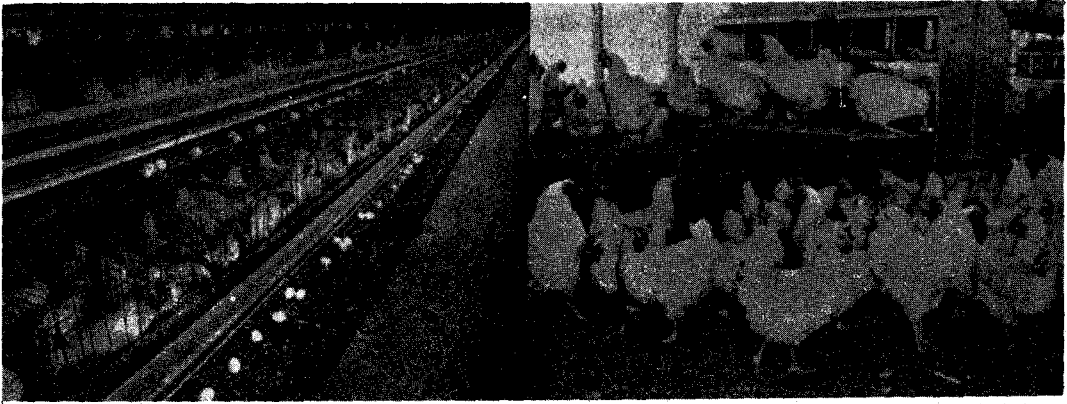
계산물의 유통혁신에 대해서는 정부측도 해야 될 일이 산적되어 있다. 퇴보적인 유통구조를 생산자들의 힘만으로 고쳐나가기에는 벅찬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의식구조속에 뿌리박혀 있는 불신감과 중간유통인들의 불공정한 이윤추구가 존속되는 한 계산물의 유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도계장을 만들 수 있게끔 자금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

시에 유통의 질서확립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감하고 지속성있게 취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위생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여 위생적인 도계품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계산물 가격의 안정은 양계발전의 가장 시급한 과제

양계의 전업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네번째의 문제는 계산물가격의 불안정에 있다. 양계는 단기사육이 가능하고 생산체제가 효율화되어 있어서 이윤의 폭이 크게되면 단시일내에 파잉생산되기 쉽다. 그렇다고 소비가 갑자기 팽창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가격의 폭락현상이 쉽게 온다. 생산공급이 가격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장가격이 생산비를 밀들게 되면 전·기업양계자들은 사육규모를 쉽게 축소시켜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후에는 공급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가격은 다시 상승 내지 폭등하게 된다. 그래서 양계산업은 불안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많은 생산자들에 의해서 쉽게 생산규모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의 빈도가 잦아진다.

계산물가격의 불안정이 생산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같이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대 식품회사가 일정 양계농가와 생산을 계약해서 조달하는 계열화체제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생산과 유통이 계열화됨으로써 생산자는 계약가격 아래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고 중간 유통인은 안정된 공급기반 위에서 판매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거리마다 켄터키 후라이드치킨이라는 간판이 많이 붙어있고, 유통을 계열화하려는



▲ 도입 사료곡물을 다른 축산분야에 비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양계산업은 경제발전의 국가적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성장산업이다.

곡물을 주식으로 하면서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우리나라와 빵과 축산물을 주식으로 한 서구의 여러나라와는 비교의 기초가 다르지만, 그들의 닭고기 연간 소비량을 보면 국민 한 사람당 미국이 35kg, 캐나다 26kg, 호주 16kg, 서독 9kg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도 9kg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우리와 식생활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도 닭고기를 우리보다 네 배나 높은 9kg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수산물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일본사람들이 닭고기 소비를 10kg 가까이 접근시키고 있다는 것은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의 결과로 보아지는데 우리나라도 소득이 향상되면 닭고기 소비는 늘어날 것이다.

앞서 가는 나라들의 닭고기 소비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닭고기 소비가 늘어나리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으며, 다만 그 규모의 문제뿐이다. 그렇다면 양계산업의 전업화 과정에서 어떻게 닭고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로 잡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라 말할 수 있다. 한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닭고기에 대한 관념이나 기호가 스스로 변해서 양계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돌아 오도록 기다릴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양계산업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소비패턴이 빨리 적응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두 분야의 변화속도에 피리가 커지면 양계산업은 붕괴될 위험성마저 안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유통은 모두 농민들에 의해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양계의 전업화 과정에서 생기는 세번째 문제는 생산의 발전속도보다 훨씬 뒤쳐진 유통분야의 전 근대성에 있다. 생산자체는 고도로 효율화되고 있는데 육계의 유통이나 계란의 유통구조는 한말로 옛날 그대로의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양계분야에 관한 한 중간상인이나 소비자가 생산자들의 의식수준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 보아진다. 도계품보다 비위생적인 생계를 소비자가 더 선호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으로 내려온 하나의 습관에서 소비자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물론 사회전체적으로 팽대되어 있는 불신풍조가 소비자들의 시장행위를 그와 같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현실이 이와 같다면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생산자들이 앞장서서 제 2의 선구자적 역할



▲ 식관습의 개선을 통해 양계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사진은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닭고기 요리)

움직임이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도시기업가들이 양계업에 뛰어들어 생산까지 담당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원을 빼앗아 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식관습 개선으로 계란소비 확대

양계산업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나마 옆치락 뒤치락 하면서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 특히 사양기술의 발전면에서는 놀라운 진전을 보아 온 것이 사실이다. 계란의 경우에는 지난 몇년간 실질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산란계업은 몰락되지 않고 생산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산란계생산자들이 많은 빚더미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생산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쇠고기 소비에 편중되어 있는 소비자의 성향이 맛있는 튀김닭고기 소비로 전환되는 경

우 닭고기 수요의 전망은 매우 좋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아침에 계란후라이를 두개씩 먹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이틀에 한번씩만 먹어도 일년이면 365개를 먹게 될 것이고 각종 제과용과 같은 가공에 들어가는 계란의 소요량이 더불어 늘어나게 되면 양계산업의 전망은 밝을 수 밖에 없다.

어느나라에서나 소득이 향상되면 쇠고기를 많이 먹게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여건상 쇠고기를 많이 먹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결국 육류소비의 주종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인데 사료효율이 닭의 생산에서 더 높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양계산업을 더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때 양계산업은 성장산업으로써 밝은 전망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계산업이 성장함으로써 높은 고지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쇠퇴산업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양계인들이 유통과정에서 미국의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같은 고급의 닭고기 요리를 개발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지금과 같이 싸구려 튀김으로 만들어 저질의 닭고기를 술안주로 판매한다면 양계가 성장산업으로 오래 남을지는 의문이다. 맛있게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파고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이 어렸을 때 부터 맛을 익히고 성장과정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닭고기를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양계인들이 생산활동에서 보여준 노력과 업적은 높이 평가될만 하다. 20년전 또는 10년전 양계업에 뛰어들 당시를 연상하면서 다시 한번 개척자적 자세로 계산물의 유통에 뛰어들어 쾌쾌묵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계산물의 가공을 개발시켜 소비자들의 구미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양계산업은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이다.